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본문: 요한복음 4장 43-54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을 사 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인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1. '때문에' 신앙: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들을 보내신 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음에도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재가 어떻게 변하냐", "저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 말씀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기적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때문에' 신앙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믿고, 상황이 좋아야 순종하고, 결과가 보장되어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순종 못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못 갑니다."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때문에'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입니다.

2. '불구하고' 신앙:

말씀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아들이 살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단지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믿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만 붙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이 떨어진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고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이 아

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만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불구하고’ 신앙을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형편이 부족하지만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있지만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3. 믿음의 가정:

말씀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다 검증하고 안전이 보장된 뒤에 출발하는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가정,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세상은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건너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종교적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완벽한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말씀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 나눔 적용 문제

1.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문에’ 신앙에 가까운가, ‘불구하고’ 신앙에 가까운가?
2.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자주 내세우는 이유나 핑계는 무엇인가?
3. 만약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돌아왔을 때, 아들이 죽어 있었다면,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 응답의 결과에 감사할 수 있는가?
4. 내가 가정, 결혼, 관계 안에서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믿으려는 영역은 무엇인가?
5. 믿음의 가정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6. 우리 가정 또는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가정이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훈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7. 이번 주에 내가 ‘불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가지는 무엇인가?